

『韓国語教育研究』(第7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한국어 문법의 “있다”, “없다”의 품사 재 검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임 문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7年9月

# 한국어 문법의 “있다”, “없다”의 품사 재 검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임 문택

본 연구는 필자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해 오면서 경험한 “있다”와 “없다”의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법적 정의를 제안하기 위함이며, 현 학문적 정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있다”와 “없다”의 문법적 정의를 재 검토해 봄으로써 다른 품사들과 활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와 독립 품사로서의 정립을 타당화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통일되지 않은 현 문법 용어를 실제 교수법에 사용할 때 일본어와 한국어, 상호간의 이질성과 마찰이 번번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양 언어의 문법적 정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 검토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1. 들어가기

최근 한국어 교재의 출판 동향을 살펴보면 의사 소통 중심의 교재가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법 중심의 교수법의 보안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학습자가 문법 교육을 확실히 학습한 후, 실전 회화 연습에서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이라고 보는데, 직접 교수법 및 회화 중심의 교수법의 단점이 이 피드백을 원활히 교수할 수 없고, 수업 활용 시간에 비해 효과가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문법 교육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법 교육을 실현하여 학습자들의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아직 문법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수법의 연구도 미흡한 상태로 연구의 필요성을 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문법 용어의 구축을

위해 통사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적 정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있다”와 “없다”의 품사적 정의를 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조남호(2002)에 따르면 현대 국어 150 만 어절 말뭉치에서 “있다”는 18,202 회 출현하는 상위 4 위의 사용 빈도 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그의 대의어인 “없다” 또한 사용 빈도 수가 8,969 회 출현하는 말뭉치 사용 빈도 순위 10 위에 들어가는 단어이다.

“있다”는 일본어의 “ある”, “いる”에 해당하며, “없다”는 “ない”, “いない”에 해당하는데 통사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 형태가 한국어는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어는 두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또 양 언어의 품사적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도 한국어를 깊이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큰 궁금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양 언어의 품사적 정의의 대조를 시작으로 일본어 화자 학습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품사 정의를 제시해 본다.

“있다”와 “없다”는 그 활용 형태가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를 동시에 나타내는 용언으로 그 품사의 정체성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 논의가 있어왔다. 평서형의 “있다”와 “없다”는 감탄형의 “있구나”와 “없구나”와 같이 그 활용 형태가 형용사와 일치하지만, 관형사형의 “있는”과 “없는”은 동사와 같이 “-는”의 결합이 가능한 활용형을 보이는 것이 “있다”와 “없다”에 대한 품사 논쟁이 되어왔다.

이에 품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자들 중 “존재사”라는 품사를 새로 설정하는 견해가 있어왔다. 그 이유는 동사의 활용형과 형용사의 활용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존재”라는 의미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완웅(1929), 박승빈(1935), 심의린(1936), 김근수(1947), 이희승(1955), 서정수(1996)의 “존재사설”이 있다. 이 견해는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과, 존재사 “있다”와 “없다”의 활용상의 차이를 중시한 것으로, 단어의

존재 의미와 “있다”와 “없다”의 대어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최현배(1987)는 형용사로, 최창렬(1974)은 “있다”와 “계시다”는 동사로, “없다”는 형용사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허웅(1983)은 “있다”는 동사로 “없다”와 “계시다”는 형용사로 각각 분리하여 품사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유현경(2013)에서는 “있다”를 형용사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학설이 있는 중에 현 학교 문법에서는 “있다”와 “없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 3. 일본어의 “ある”와 “ない”의 품사 정의

일본어의 “ある”와 “ない”의 품사 정의에 들어가지 전에 일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이 없는 무생물과 살아있는 생물의 존재 유무의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단어로 “ある”와 “ない”가 있는 반면, 보편적으로 살아 있는 생물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단어로 “いる”와 “いない”가 있다. 이렇게 명확한 대어적 관계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일본어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뚜렷한 품사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단어 “ある”는 일반적으로 존재 동사(5 단 활용 자동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ない”는 형용사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살아있는 생물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いる”는 존재 동사(상 1 단 자동사)로 분류되어지고 있으나 “いない<sup>2</sup>”는 아직까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sup>3</sup>

### 4. “있다”와 “없다”의 품사 갈래

지금까지 연구된 “있다”의 품사적 갈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선 연구에서는 “있다”를 존재사, 동사, 형용사, 형용 동사로 보는 견해가

<sup>1</sup> 한국어의 「있다」와 「없다」도 존경형의 표현에서는 「계시다」와 「있으시다」의 꼴로 나타나는데 일본어의 생물과 무생물의 분류가 아닌, 사람과 사물이나 사실의 분류 형태 나눔으로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sup>2</sup> 단어 형태론으로 보면 형용사의 꼴을 하고 있음. 「-い」

<sup>3</sup> 岩波書店(2008) 日本語広辞苑. 참고

주였으며, 그 주장은 학자들마다 입장이 달랐으나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있다”의 품사 갈래의 앞선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어 화자 학습자를 위한 “있다”와 그의 대의어인 “없다”의 가장 적합한 품사 정의를 제시해 본다.

## 5. 박종덕(2006)의 품사 정의

박종덕(2006)에 따르면 “있다”의 품사를 존재사, 동사, 형용사로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5.1 박종덕(2006)에서의 존재사설의 부정

표 1. <“있다”의 존재사설의 의미 갈래><sup>4</sup>

- A. 신은 있다. (존재)
- B. 근수는 책이 있다. (소유)
- C. 한글 학회는 서울에 있다. (소재나 존재)<sup>5</sup>
- D. 시험은 하루 있다 친다. (경과)
- E. 부시가 미 대통령으로 있다. (재직)
- F. 회장님이 운전 중에 있다. (진행)
- G. 있지? 그게 뭐였더라? (강조·확인)
- H. 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이다. (∅, 생략 가능)

위 표 1 을 예로 들어 박종덕(2006)에서는 존재와 소유의 뜻을 지닌 “있다”는 A.와 B.뿐이니, 이는 “있다”가 존재사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sup>4</sup> 박종덕(2006)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예문 참조.

<sup>5</sup> 한글 학회는 어디에 있지? 한글 학회는 서울에 있다. (소재)  
 한글 학회라는 데가 있니? 한글 학회는 서울에 있어. (존재)

## 5.2 박종덕(2006)에서의 동사설의 부정

표 2. <“있다”의 동사설><sup>6</sup>

- A.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동작)
- B. 판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동작)
- C.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동작)
- D. 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괜찮아지더라. (동작)

또 박종덕(2006)은 위 표 2 의 예를 들어 동작의 뜻을 가지는 “있다”를 인정했지만, 표 1 의 예문들과 비교하여 “있다”는 동사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5.3 박종덕(2006)에서의 형용사설의 부정

표 3. <“있다”의 형용사설><sup>7</sup>

- A.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
- B. 증거가 있다.
  -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
- C. 좋은 일이 있다.
  -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
- D. 그는 있는 집 자손이다.
  -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은 상태.
- E. 네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
- F. 그 소문 있지? 사실이래.
  - 어떤 대상이나 사실의 강조·확인

<sup>6</sup> 박종덕(2006)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예문 참조.

<sup>7</sup> 박종덕(2006)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예문 참조.

- G. 책상 위에 책이 있다.  
 - 사람, 사물, 어떤 사실,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
- H. 그는 한동안 이 집에 있었다.  
 -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
- I.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일이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
- J. 이 차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있다.  
 -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
- K.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다.  
 - 어떤 사람이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
- L. 가족 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
- M.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바로 연락해라.  
 -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
- N. 국어사 시대 구분에 있어서의 제 문제.  
 -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
- O. 앞으로 얼마나 더 노처녀로 있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
- P. 그 소문은 근거가 있는 거냐?  
 - 근거나 성립 상태.

위 표 3의 예문들은 사람, 동물, 물체, 사실, 현상, 재물, 일, 사물, 근거 등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박종덕(2006)은 앞선 표 1, 표 2와 표 3의 예문들을 대조 비교 설명함으로써 “있다”를 품사통용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박종덕(2006)에서는 위의 예문들의 비교 설명을 토대로 결론적으로 형용동사설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 6. 본 고에서의 “있다”와 “없다”의 품사 정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있다”의 품사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와 정의가 서로 다르며,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 설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필자의 시각으로 한국어의 “있다”와 대어적 의미를 가진 “없다”의 품사적 정의를 재 검토해 본다.

필자는 “있다”의 품사적 정의를 “존재사”로 하며, 대어적 의미를 가진 “없다”도 같은 품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6.1 본 고에서의 앞선 연구 존재사설의 재 해석

표 4. <앞선 연구 존재사설의 재 해석>

- |   |
|---|
| <p>A. 신은 있다. → 신은 없다.<br/>(신의 존재 유무)</p> <p>B. 근수는 책이 있다. → 근수는 책이 없다.<br/>(소유 즉 그 사물의 실재 유무)</p> <p>C. 한글 학회는 서울에 있다. → 한글 학회는 서울에 없다.<br/>(소재 즉 그 실재의 존재 유무)</p> <p>D. 시험은 하루 있다 친다. → *시험은 하루 없다 친다.<br/>(존재하는 남은 시간의 상태)</p> <p>E. 부시가 미 대통령으로 있다. → *부시가 미 대통령으로 없다.<br/>(존재하고 있는 진행 시간 상태의 수행)</p> <p>F. 회장님이 운전 중에 있다. → *회장님이 운전 중에 없다.<br/>(존재하고 있는 진행 시간 상태의 수행)</p> <p>G. 있지? 그게 뭐였더라? → *없지? 그게 뭐였더라?<br/>(존재하고 있는 감정 상태에 대한 강조 및 확인)</p> <p>H. 학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이다.<br/>→ *학자에게 없어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이다.<br/>(필요의 존재 인식, 생략 가능)</p> |
|---|

위의 표 4 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있다”의 존재사설의 의미 갈래인 표 1 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 해석해 보았는데, 먼저 대어적 관계가 성립되는 A, B, C 와 대어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D, E, F, G, H 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어적 관계성이 성립되는 예문은 실재하는 사물이나 존재의 대상, 즉 존재의 확인이 시각적인 판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대어적 관계성이 명시되지 않는 예문은 추상적인 것으로써 화자가 시간과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화자의 시각으로 존재의 유무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 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6.2 본 고에서의 앞선 연구 동사설의 재 해석

표 5. <앞선 연구 동사설의 재 해석>

<p>A.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존재하는 사실의 의도 표현)</p> <p>B.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존재하는 상태 진행 유지의 명령)</p> <p>C.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존재하는 상태 진행의 변환 요구의 명령)</p> <p>D. 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팬찮아지더라. (존재하는 시간의 경과)</p>
--

위의 표 5 는 “있다”의 동사설 표 2 를 필자의 시각으로 재 해석해 보았는데, 아래의 설명으로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먼저 예문 A.의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라는 문장은 “있는다”를 “머문다”라는 동작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머문다”는 동작성 의도 표현이 아닌, 제3자가 내일 집에 있으려고 하는 존재 상태의 의도 표현을 화자가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B.의 예문도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라는 예문도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근무해라.”라는 동작의 의미가 아닌,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존재 상태의 지속을 유지하라는 명령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의 예문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라는 문장도 떠들고 있는 존재하는 상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명령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의 예문 “조금 있으니”도 동작의 설명이 아닌 존재하는 시간의 경과에 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있다”를 동사설로 보려는 위의 예문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으로 활용이 되지만, “없다”를 사용한 대의적 관계의 부정형의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태 표현의 지속이기에 실재 상태의 유무와는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존재사 “있다”와 “없다”는 다른 품사와 달리 실재의 유무인지 상태의 유무인지에 따라 그 대어적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6.3 본 고에서 앞선 연구 형용사설의 재 해석

표 6. <형용사설의 재 해석>

- |   |
|---|
| <p>A.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br/>-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재하는 상태.</p> <p>B. 증거가 있다.<br/>-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p> <p>C. 좋은 일이 있다.<br/>- 어떤 일 즉 상황의 존재.</p> <p>D. 그는 있는 집 자손이다.<br/>- 재물이 넉넉한 존재 상태.</p> <p>E. 네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br/>- 어떤 일 즉 상황의 존재.</p> <p>F. 그 소문 있지? 사실이래.<br/>- 어떤 대상이나 사실의 존재.</p> <p>G. 책상 위에 책이 있다.<br/>- 사물이 어떤 곳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p> |
|---|

- H. 그는 한동안 이 집에 있었다.  
-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 상태.
- I.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어떤 일의 진행 상태나 처한 상태.
- J. 이 차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있다.  
- 물체의 존재 상태.
- K.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다.  
-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의 존재 상태.
- L. 가족 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 관련 인물의 존재하는 상태.
- M.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바로 연락해라.  
- 처한 상황의 존재 상태.
- N. 국어사 시대 구분에 있어서의 제 문제.  
-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
- O. 앞으로 얼마나 더 노처녀로 있어야 하는지 걱정이야.  
- 지위나 역할의 존재 상태.
- P. 그 소문은 근거가 있는 거냐?  
- 근거나 성립 상태.

위의 표 6 은 “있다”를 형용사설로 보고 있는 표 3 의 예문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 해석해 보았으나 대어적 관계가 성립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설명으로 충분하다.

형용사의 정의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라는 점과,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존재사의 정의가 “사물을 포함한 시간과 상태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라는 점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사 “있다”와 “없다”는 지금까지 필자가 분석해 본 결과 형용사와는 그 본질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과 그 용언의 활용이 형용사와 일치하지 않는 별도의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단일 품사로 정의를 내려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 7. 결론

한국어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존재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를 이르는 말.  
실재보다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재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실재와 존재의 의미 구별을 직시해야 하며 “있다”의 품사 논쟁에서 본 앞선 연구와 같이 유정물과 무정물의 실재 유무가 대어 관계로 명시되는 문장의 용언만을 존재사의 범주에 넣어 정의하려는 발상이 아닌, 대어적 의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의 존재, 감정의 상태 지속, 감정의 인식, 사실의 존재, 지위와 역할 상태의 지속, 동작 상태의 지속 등을 존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시간과 감정은 실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앞선 연구인 “있다”의 품사적 정의를 선행 연구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있다”와 그의 대어어인 “없다”의 품사 정의 방안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 검토해 보았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있다”와 “없다”를 “존재사”라는 독립 품사로 정의하여 학습자들에게 인식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필자의 주장이다.<sup>8</sup>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를 처음 경험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목표 언어의 문법적 정의에 얼마나 알기 쉽게 접근해 가는가에 따라 그 학습 효과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있다”와 “없다”는 존재사라는 독립 품사의 정의로 그 활용 방식이 다른 품사들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학습자들이 이해함으로써 학습 진행의 성취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실전 회화에서의 피드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어로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야말로 말로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이 바라고 있는

---

<sup>8</sup> 대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없다”도 같은 품사로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임.

가장 이상적인 교수법임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하여 초급 과정에서의 문법적 정의를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지 못하고 회화 중심의 학습만을 선호한다면 학습자들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학습자들은 문장 형성의 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기 마련이며, 원활한 의사 소통의 교육에 장애를 주고 만다.

학습자들의 궁금증을 최소화하고 학습한 문법을 기초로 바른 한국어 회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고 있다”와 “-아/어/여 있다”의 형태 연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상태 존재를 나타내기에 대어적 관계를 가지는 “-고 없다”, “-아/어/야 없다”의 형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품사 정의와는 논점이 다른 범주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문말 어미의 “-고 있다”는 동작의 현재 진행 상태라는 점과, “-아/어/여 있다”는 동작의 진행 완료 상태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현도 존재 상태의 유무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사”의 범주에 들어감은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별 고에서 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어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연결 어미로서의 기능을 하는 “-고 없다”에 대한 설명은 각주 9에서 하며 본 고를 마무리한다.<sup>9</sup>

<sup>9</sup> 연결 어미로서의 기능을 하는 “-고 없다”는 문장의 형성 원리인 형태론적 연구의 영역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품사 정의로는 “존재사”에 속한다.

- 각각의 기능을 하는 “-고 있다”와 “-고 없다”의 예 -

\*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문말 어미의 “-고 있다”.

- 저기 철수가 가고 있다. (○) → 저기 철수가 가고 없다. (×)

⇒ 현재 진행 상태 표현

- 철수는 라면을 먹고 있다. (○) → 철수는 라면을 먹고 없다. (×)

⇒ 현재 진행 상태 표현

\* 연결 어미로서의 기능을 하는 “-고 없다”.

- 음식은 다 먹고 있다. (×) → 음식은 다 먹고 없다. (○)

⇒ 음식은 다 먹고 지금 실재하지 않음.

- 철수는 가고 있었다. (×) → 철수는 가고 없었다. (○)

⇒ 철수는 이동해 지금 존재하지 않음.

## 参考文献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김근수(1947) 중학 국문법책.  
김영미(1995) “있다”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 연구회.  
박종덕(2006)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한글 제 274 호.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심의린(1936)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 조선어 연구회.  
유현경(2013) “있다”의 품사론. 한국문학언어학회.  
이안구(2001)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관학어문연구 제 26 집.  
이완웅(1929) 중등교과 조선어문진. 조선어 연구회.  
이희승(1955)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정자훈(2004) “있다”와 “없다”의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최현배(198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응(1983)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南得鉉(2003) 日韓兩言語の存在表現に関する対照言語学的研究. 広島大学 박사학위 논문.  
安平鎭(2004) 存在動詞에 관한 韓日對照研究. 일본학보 제 61 집.  
岩波書店(2008) 日本語広辞苑.

(무지개 韓國語學院 學院長)

shinaburo@solid.ocn.ne.jp

## 韓国語教育研究 第7号

ISSN 2186-2044

2017年 9月 10日 印刷

2017年 9月 15日 発行

発行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 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e-mail: jaklemejiro@gmail.com

編集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委員長 /金世徳 kim@ashiya-u.ac.jp)

印刷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983-0035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  
日の出町二丁目 4-2  
TEL 022 (236) 7161 (代) / FAX 022 (236) 7163